

서울시정관련 연구동향

2014 년 국내외 경제전망, 성장률 3% 중반의 완만한 회복

LG 경제연구원 | LGERI 리포트 | 2013.12.18

<http://www.lgeri.com/economy/domestic/article.asp?grouping=01010100&seq=957>

2014 년 국내경제 성장률 3.7%, 경상수지 400 억달러, 원/달러 환율 1,030 원 예상

2014 년 세계경제 성장률 3.5%, 국제유가 100 달러 내외 전망

- 세계경제전망
 - 선진국이 세계경기 회복을 선도하며 경제 성장률은 3.5% 수준
 - 출구전략에 따른 유동성 회수가 세계경기의 빠른 성장세를 제약하는 요인
 - 유로존의 경기회복 흐름과 일본의 아베노믹스 성과는 지속될 전망
 - 중국은 수출이 다소 회복되면서 성장을 주도하며 경제성장률은 7.4% 전망
 - 국제유가는 100 달러 내외, 출구전략 시행으로 금리상승 재개, 유로화 및 엔화 약세
- 국내경제 전망
 - 경기상승 기조가 이어지며 국내경제 성장률은 3.7%
 - 경상수지 흑자는 400 억 달러 규모, 원/달러 환율은 평균 1,030 원 수준
 - 설비투자 증가율은 경제성장률보다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나, 건설투자는 1% 내외로 부진할 전망
 -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% 초반, 민간 소비증가율은 3% 수준
 - 금리상승으로 기업의 자금조달 부담 확대
- 정책 시사점
 - 통화정책은 당분간 확장적 기조 유지가 필요
 - 당초 계획보다 재정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존재하고, 중기적인 재정지출 계획의 재조정이 필요
 - 원화의 빠른 절상에 대한 대비와 가계부채의 안정 노력 지속
 - 과도한 공급축소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높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, 임차가구의 부담을 줄이는 정책의 보완이 필요

2014년 거시경제 전망

산업연구원 | KIET 산업경제 569호 | 2013. 11.28

http://www.kiet.re.kr/kiet_web/main.jsp?sub_num=9&state=view&idx=45136&ord=0

2014년 국내경제 성장률은 3.7% 내외, 민간소비는 3%대 초반, 설비투자는 5%대 중반, 건설투자는 2% 초반의 증가가 예상되며, 무역수지는 328억 달러 내외의 흑자 전망

- 2014년 대외여건 전망
 - 세계경제는 선진권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
 - 유가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 예상
 - 원/달러 환율은 하락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
 - 엔화는 절하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나 상대적인 안전통화로 부각되면서 절상압력을 받을 가능성도 존재
- 2014년 국내경제 전망
 - 국내경제는 수출 증가세 확대와 내수 회복으로 장기추세성장률에 근접한 3.7% 내외 성장
 - 민간소비는 소득 상승, 유가 안정과 환율 하락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 등으로 3%대 초반 증가
 - 설비투자는 수출회복과 불확실성 완화로 5%대 중반의 증가
 - 건설투자는 SOC 예산 축소 및 수주부진 등으로 2% 초반대의 증가
 - 수출은 세계경제 부진 완화로 6.7%의 증가
 - 수입은 수출 및 내수 회복에 따라 9% 내외의 증가
 - 무역수지는 328억 달러 내외의 흑자

2014년 우리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리스크

LG 경제연구원 | LGERI 리포트 | 2014. 1. 1

<http://www.lgeri.com/economy/domestic/article.asp?grouping=01010100&seq=958>

대외적 리스크는 미·중의 속도조절로 인한 글로벌 성장세의 악영향과 선진국 발 디플레이션
대내적 리스크는 민간부채, 환율 불안정, 대북 불안 및 동북아 리스크 점증

- 대내외 리스크 요인 및 우려되는 점
 - 미연준의 출구전략 파장: 유동성 감소, 신흥국의 자본 유출, 금리인상
 - 선진국발 디플레이션: 유로존의 디플레 우려로 경기회복에 대한 전망도 다소 불투명
 - 아베노믹스의 투자·소비 선순환 불발 가능성: 소비심리 위축 가능성, 재정확대와 금융완화 정책의 한계
 - 여전히 취약한 신흥국: 신흥국 금융시장의 불안, 경상수지 적자 증가, 중국의 성장둔화, 자산거품과 재정적자
 - 속도조절에 나선 중국경제: 지방정부 부채 문제, 부동산 문제, 만연한 설비 과잉
 - 고조되는 동북아의 지정학적 리스크: 북한 리스크, 동중국해에서 국지적 충돌 가능성, 한일 간의 영토 문제와 징용배상 판결
 - 취약해지고 있는 민간부문의 건전성: 특정 기업의 부실이 자본시장 전체로 확산될 위험, 가계부채의 질적 악화, 금리상승에 따른 원리금 상환부담 증가 가능성
 - 환율 불안정: 국내외 정책환경의 급변으로 인한 원화가치의 급등락 위험 확대
- 시사점
 - 국내외적으로 커다란 리스크 요인은 줄었지만 아직 불안요인이 곳곳에 산재
 - 그 동안 위기관리에 중점을 두어 온 정책스탠스를 당분간 유지
 - 현재의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 유지
 - 자금시장 및 외환시장 모니터링 강화, 주요국과의 통화스왑 규모 확대, 국가신용등급 개선 등

2014년 산업 전망

산업연구원 | KIET 산업경제 | 2013.12

http://www.kiet.re.kr/kiet_web/main.jsp?sub_num=9&state=view&idx=45151&ord=0

10대 주력산업의 수출은 5.1%, 수입은 5.3% 증가 전망

생산은 모든 업종에서, 내수는 조선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증가

- 2014년 10대 주력산업 전망
 - 수출은 세계수요의 회복에 힘입어 5.1% 증가
 - 생산은 수출확대에 힘입어 조선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증가
 - 내수는 일반기계의 호조 속, 조선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증가
 - 수입은 내수와 수출 회복으로 5.3% 증가
 - 일부 산업(휴대폰, 가전, 자동차)의 수출 호조 배경에는 해외생산지의 가동률 확대가 부품수출을 유발시키는 점도 작용
- 2014년 10대 주력산업 전망 종합
 - 산업군별 수출을 보면 기계산업군은 크게 개선(5.4%), IT 제조업군은 증가율 둔화(5.9%), 소재산업군은 소폭 개선(3.6%)
 - 일반기계와 반도체가 수출과 생산 등에서 호조세를 보이면서 성장세 주도 예상
 - 정보통신기기, 가전, 자동차가 수출호조세를 이어가며 주력산업 전반의 수출확대에 기여
 - 일부 산업의 수출 호조 전망 배경에는 해외생산 거점의 가동률 확대가 고부가가치 핵심부품의 수출을 유발시키는 점도 작용
 - 2014년 주력산업 성장의 변수로 작용할 요인으로는 신흥국의 경기회복 정도, 원화강세 및 엔화약세 지속 여부, 중국업체의 글로벌 입지 확대 등

2014년 국내 10대 트렌드

현대경제연구원 | 한국경제주평 | 2014.1.6.

<http://www.hri.co.kr/storage/newReList.asp>

거시경제 부문에서 중성장시대로의 진입, 스마트 소비의 확산, 주택시장의 바이플레이션
산업·경영 부문에서 제조업 한류의 개막, 서비스업 명품화의 원년, ICT 융합산업의 재도약

• 2014 국내 10대 트렌드

- ① 중성장시대로의 진입: 한국경제는 고성장의 한계에 봉착하는 중성장시대로 진입
- ② 스마트 소비의 확산: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효용가치를 추구하는 스마트 소비 확산
- ③ 주택시장의 바이플레이션(Biflation): 주택시장에서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 동시에 나타나는 바이플레이션 현상 대두
- ④ 디레버리징(Deleveraging) 필요성 증대: 가계부채와 공공부채가 채무부담 임계치에 근접하면서 '디레버리징'의 필요성 증대
- ⑤ 퍼플칼라(Purple Collar)의 확산: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포함한 유연근로시스템의 확대
- ⑥ 제조업 한류의 개막: 세계시장에서 우리제품의 품질경쟁력과 브랜드경쟁력을 인정받는 동시에 문화 한류의 확산이 더해지면서, 한국제품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.
- ⑦ 서비스업 명품화 원년: 서비스산업에서 의료관광 등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부문들의 등장
- ⑧ ICT 융합산업의 재도약: ICT 산업이 세계시장 선도형 ICT 융합산업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
- ⑨ 위로가 필요한 사회: 고용·주거·노후불안이 상시화되면서 위안과 안식이 필요한 사회 도래
- ⑩ 남북경협 3.0 시대의 모색: 남북경협은 제도화를 통한 새로운 시대로의 진입을 모색

2014년 글로벌 10대 트렌드

현대경제연구원 | 한국경제주평 | 2013.12.30

<http://www.hri.co.kr/storage/newReList.asp>

경제 부문에서 '황제의 귀환', 'Grey Swan 등장 우려', 'Energy Hegemony 변화'

산업·경영 부문에서 '디지털 소재혁명 본격화', '세계 제조업 지형도의 개편'

• 2014 글로벌 10대 트렌드

- ① 글로벌 거버넌스(Global Governance)의 위기: 강력한 리더십에 의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부재로 다양한 지역 내 불안 고조 우려
- ② 황제의 귀환: 선진국은 양적완화 정책을 비롯한 지속적인 경기대책에 힘입어 빠른 경제회복세 달성
- ③ 그레이 스완(Grey Swan)등장 우려: '그레이 스완'으로 대변되는 일부 국가들의 내부 리스크로 인한 세계경제의 불안 야기 가능성
- ④ 에너지 헤게모니(Energy Hegemony)변화: 북미지역의 '비전통 에너지혁명'으로 에너지 패권이 중동과 러시아에서 미주지역 등으로 분산
- ⑤ 디지털 소재혁명 본격화: 디지털 패브리케이션 기술의 발전으로 디지털 소재혁명이 시작될 전망
- ⑥ 세계 제조업 지형도의 개편: 세계 공장으로서 중국을 대신할 국가들의 각축과 함께 선진국들의 제조업 부흥책 추진으로 세계 제조업 지형도 개편
- ⑦ 클라우드 네트워크(Cloud Network) 본격화: 클라우드 컴퓨팅과 소셜 네트워크의 발전으로 공유정보를 활용한 창의적 문제해결 사례가 빠르게 증가할 전망
- ⑧ 호모 로보틱스(Homo Robotics)의 등장: 인간과 로봇의 경계가 모호한 호모 로보틱스가 현실세계에 출현할 전망
- ⑨ 요우커(遊客)의 진화: 중국인 관광객의 소비트렌드가 저소비·단순 관광형에서 고소비·복합 관광형으로 변화
- ⑩ 초국적 인류(Transnational Human)의 출현: 국적을 초월해 인류의 보편적 가치, 공동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활동을 벌이는 '초국적 인류'가 확산될 전망

2014 문화예술트렌드 분석 및 전망

한국문화관광연구원 | 연구보고서 | 2013.12.31

http://www.kcti.re.kr/03_1.dmw?method=view&reportId=100&isSearch=false&reportCategory=-1&reportTitle=false&userName=false&reportContent=false&reportSeq=959&pageNum=1&groupNum=1

2014 년도 문화예술계 및 사회전반에 걸친 키워드로는 ‘간편하게’와 ‘소소함’

융·복합과 다양성, 모듈화·분절화되는 사회의 흐름이 반영된 문화소비의 양상 발견

• 2014 문화예술 10 대 트렌드

- ① 스낵 컬처(Snack Culture)의 유행: ‘스낵처럼 짧은 시간에 간편하게 즐기는 문화’라는 의미의 스낵 컬처는 소비와 여가의 모습을 바꿀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‘창작자’로서의 통로 제공
- ② 개인에게 집중하는 TV, 전략적 타기팅: TV 매체와 콘텐츠에도 개인맞춤형을 선호하는 분위기
- ③ 공유하고 협업하는 생활문화예술: 지역의 시설을 거점으로 동호회 및 문화예술모임이 생활밀착형으로 진화
- ④ 문화예술계 성장엔진은 사람이다: 문화예술계의 인재 키우기 열풍, 전문 인력양성제도의 본격화, 젊은 문화예술인들의 1인 창업에 대한 관심 증가
- ⑤ 문화예술계, 갑-을 관계 허물기의 시작: 창작을 위한 최소안전망 구축과 콘텐츠를 제작하는 창작자의 금전적인 소유권에 대한 문제도 대두
- ⑥ 히스토리가 스토리로, 문화유산의 재발견: 문화유산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‘스토리텔링’과 한글의 문화적 가치에 대한 관심 증가
- ⑦ 디지털 시대, 청소년의 새로운 가능성: 문화 생산자와 주체자로서의 청소년의 잠재성에 주목
- ⑧ 기업, 문화예술로 가치를 공유하다: 기업의 사회공헌에 대한 의식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서 공유 가치창출 개념으로 변화
- ⑨ 인문학 열풍: 문화시설과 연계한 인문학 교육프로그램의 증가와 이에 따른 정책적 지원 확대
- ⑩ 문화, 국가정책의 키워드가 되다: 문화예술이 지닌 ‘문화의 가치’를 창조경제의 핵심으로 강조

※ 본 자료는 연구 활동 및 시정 업무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작성된 것임.

서울연구원 도시정보센터 출간자료팀
email: urbandata@si.re.kr
phone: 02-2149-1022